

25년 2월 목회일정

2일(주일)	정기제직회
9일(주일)	성찬가족심방
1-2월(오후)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7(금)-8일(토)	두교회 중고대연합수련회(송정 호호하우스)
22일(토)	유년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예배당)
3일(월)	동래시찰회 신년인사회(십자가교회당)
7일(금)	신학생유치위원회(거제교회당)
23일(주일)	덕계중앙교회 헌신예배인도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3. **정기제직회** /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
4. **성찬입회식** / 이광원 성도의 성찬입회식이 오전예배 시에 있습니다.(성찬1교구-성찬2조)
5. **중고대연합수련회** / 7일(금)~8일(토) 송정 호호하우스펜션
주제 :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젠더(gender)]
강사 : 양주동 목사, 김우곤 전도사 회비 : 2만원
참석 : 김해개혁장로교회 동래언약교회 중고대학생
6. **성찬가족심방** /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1조 - 김요림가정 2조 - 이경준가정 3조 - 구성본가정
7. **목사동정** / 1) 동래시찰교역자회 - 3일(월) 11시 십자가교회당
2) 신학생유치위원회 - 7일(금) 10:30 거제교회당
8.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2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김영민 봉헌-구성본 안내-최진언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2월	03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헌	구성본	박지영
안내	최진언	노주혜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주 / 문경실

주후 2025.02.02.(제29-05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예배에로의 부르심 ↑ 히10:22(교송)
인도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회 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축복의 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가38장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 5장(전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제 8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65장(3a-3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삼상 2:1-10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14장(1-5)
설교 ↓ 설교자

한나의 노래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3-4)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364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교회소식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개회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예로의부름 ↑	시134:2,3(교송)	
	인도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 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찬송 2장	
	신앙고백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감사찬송 ↑	시편135편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마6:9-13 사43:1-7		
교리문답교독 ↓	소교리99-100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48장		
설교 ↓	설교자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645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간성경읽기	
		주일 삿 9-10 마22:23-46	
		월 삿 11-12 마 23	
		화 삿 13-15 마24:1-28	
		수 삿 16-18 마24:29-51	
		목 삿 19-21 마25:1-30	
		금 룻 1- 4 마25:31-46	
		토 욥 1- 2 마26:1-13	

주일설교를 기억하며(한나의 노래)

- 오로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간구하기를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 개혁주의신앙의 신앙정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도록
-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하여서는 어떤 권위나 압력에 굽히지 않는 신앙언론되게
-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파서교회(강인종목사)

-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 교회(with 김해개혁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 두 교회 연합이 교회 연합과 일치에 위한 바른 방향을 잘 나타내어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 두 교회가 올바른 신앙고백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신앙고백을 부지런히 배우고 잘 전수하도록
- 2월7-8일에 진행되는 중고대연합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이 신앙의 일치와 사랑의 원리를 배우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법칙(칼빈의 [기독교강요 3권]에서)

1. 기도를 드리는 6가지 이유

우리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고 마비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곤란한 때에 그에게 빌 길을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달래시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도움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기도의 네 가지 법칙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첫째 법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를 결길로 이끌어,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주시하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근심과 생각을 버리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정신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하락)

둘째 법칙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하락)

셋째 법칙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곧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티끌만큼이라도 주장해서 허영과 교만에 부푼다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하락)

넷째 법칙은,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하락)

버지'라는 고백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성도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소교리100문답c, 웨신21장 3항)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교회를 위하고, 언약공동체로서 가정을 위하고, 언약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의미할 뿐 아니라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고 한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왕상8:27,사6:1-7,렘23:23-24)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와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위엄가운데 계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대주재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위엄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롬8:15; 갈4:6)라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경망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소교리100문답b)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됨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로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사66:1)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땅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시라는 말입니다.(시139:8,행17:28)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는 우리의 길은 막힐 수 없습니다. 산과 바다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모든 곳에 당신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당신의 발등상을 삼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왕하8:44-45)(소교리100문답a)

하나님께서서는 하늘 보좌에서 땅을 당신의 발등상 삼으시고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아 아버지의 백성으로 하늘에 올라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임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2월2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64장
성경봉독	삼상 2:1-10
설 교	한나의 노래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일입니다.”

1.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

한나는 원통한 일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괴로웠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라헬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라헬과 다른 것은, 한나는 자녀가 없다고 하여 질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합니다(삼상 1:15).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쏟아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전인을 내어맡겼습니다. 그녀가 한 기도의 태도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사사기 말미에 끔찍한 두 사건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산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집 이야기를 비추며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타락상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시작은 오히려 에브라임 산지를 시작으로 왕정시대의 도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로 변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원인도 크지만, 동시에 인간 왕의 부재도 한 몫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인간 왕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를 고안하고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야웨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2.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기도

한나의 노래에는 많은 대조가 나옵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겸손과 교만의 대조”입니다. 겸손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전체에서 겸손과 교만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만행을 다 아시고 저울질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꼭 부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단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산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다고 교만했던 여인은 시들하게 말라버립니다.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뿔’에서 시작해서 ‘메시아의 뿔’로 노래를 마칩니다. 이 노래는 한 개인의 감격을 넘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곧 인간 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전쟁영웅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한나에게는 복주시고, 브닌나는 낮추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엘리야의 집은 무너뜨리십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골리앗, 사울, 압살롬은 심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은 ‘헤세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시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곧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기도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각, 계획, 고집, 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방편을 갖고 닦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2월 2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550장
성경봉독	마6:9-13, 사43:1-7
설 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도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된 기도를 꾸짖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외인이었던,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라고 부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호칭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가 언약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레26:3,1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입니다.(출4:23, 신32:6, 사64:8) 그리고 범죄하여 이방의 포로가 된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사43:1-7)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불러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대하신 장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셨고(요1:18)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친밀하게 대우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떻게 할지 답은 분명합니다(마7:11)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기도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공적으로 드러져야 함을 ‘우리 아